

일본어 종속절의 시제 해석에 관한 연구

- 연용절을 중심으로 -

이 남 일*

namiru777@hanmail.net

차례

1. 서론
2. 본론
 - 2.1 분석 시점
 - 2.2 시제 해석 원리에 따른 용례 분석
3. 결론

요 지

本稿は日本語從屬節(連用節)の時制現象において基準時点の選擇が行われる原理及びそれにつく時制解釋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先行研究によると、「時点の原理」や「構文的意味による時点の差」などによって、ある程度説明が可能であるというが、より体系的な説明が必要だと考えられる。従って本稿では節の内部での時制要素であるル形-タ形對立の出現を基にして從屬節を1類・2類・3類從屬節に分類して各々に時制解釋原理を与えて、ここに接續助詞類の意味・機能を組み合わせる場合、從屬節の時制を体系的に説明できると仮定した。次に具体的な用例をもって調べてみた結果、1類從屬節は時制要素の對立がなく、主節時を基準時点とする。2類從屬節は1類と3類の中間的な性格を持つ從屬節として主に主節時を基準時点とする。3類從屬節は主に發話時を基準時点とするが、場合によって主節時を基準時点としたりする等、柔軟性を示している。今後の課題は柔軟性を示す3類從屬節の基準時点選擇に關してもっと子細な説明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ある。

키워드 : 기준시점, 시점의 원리, 시제 해석 원리, 접속조사류, 절의 내부구조

1. 서론

본고에서는 종속절의 시제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종속절의 시제 형식이 주절시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석사졸업

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시점의 해석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종속절은 주로 연용절(부사절이라고도 한다)이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종속절의 시제 해석에 있어서 필자는 종속절의 내부 구조에 따른 절의 분류와, 이른바 접속조사류(接續助詞類)라고 부르는 종속절의 끝에 접속하는 형식명사, 조사, 접사 등에 의해 종속절의 시제해석원칙을 정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주로 연용절(連用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명사절(名詞節)과 연체절(連體節)은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¹⁾ 금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2. 본론

2.1 분석 시점

2.1.1 종속절의 내부 구조에 의한 절의 분류

복문을 구성하는 절을 절의 내부 구조라는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은 절의 내부가 어느 정도 문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 분류이다.

절의 내부 구조에 어떠한 요소가 나타나는가에 따라 절을 분류하면, 보이스 분화절, 아스펙트 분화절, 긍정·부정 분화절, 시제 분화절, 대사적(對事的) 무드 분화절, 대타적(對他的) 무드 분화절 등으로 나누어진다. 필자는 여기서 절의 내부에 나타나는 요소 중 시제 요소인 ル형-タ형 의 대립에 초점을 두어 각 분화절을 3종류로 묶어 보았다. 즉, 시제 요소인 ル형-タ형 대립이 나올 수 있는 분화절은 긍정부정 분화절 이하이다. 보이스 분화절, 아스펙트 분화절에서는 시제 요소 ル형-タ형 대립이 나올 수 없고, 긍정부정 분화

1) 예를 들면, 주명사시(主名詞時)기준을 들 수 있다. 丹羽(2001)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고 있다.

(1) 아프리카に行く計畫が去年やっと實現した。

(2)卒業して十年経ったら同窓會をする約束になっている。

(3)一年後に返すという話を、眞に受けていた。

예문 (1)은 발화시 기준으로 주절시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은 「計畫」가 세워진 시점이 기준시점이 되고 「아프리카に行く」는 그 이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조리에 맞다. (2)과 (3)도 「約束」를 한 시점, 「話」를 들은 시점이 기준시이고, 「同窓會をする」「返す」는 그 이후를 나타낸다. 즉 이 예문들은 주명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절은 시제 요소 ル형-タ형 대립이 나오나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과거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리고 시제 분화절 이후의 분화절은 시제 요소가 자유롭게 붙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이스 분화절·아스펙트 분화절을 제1류 종속절이라 부르고, 긍정부정 분화절을 제2류 종속절, 시제 분화절·대사적(對事的) 무드 분화절·대타적(對他的) 무드 분화절을 제3류 종속절로 부르기로 한다. 이것은 南(1974)의 분류 모델을 약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南의 분류에서 B류에 속하였던 「 \sim ので」는 3류로, 「 \sim ずに」, 「 \sim ないで」 「 \sim たら」는 1류로 재분류되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상의 분류를 토대로 하여 시제해석원리를 세우고, 이 원리를 가지고 종속절의 시제 해석을 하여 보고자 한다.

2.1.2 시제 해석 원리

종속절의 시제 해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을 잠시 설명하고 시점해석원리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접속조사류 앞에 접속하는 술어요소, 즉 종속절을 SC(Subordinate Clause)로 부르고, 접속조사류 뒤에 오는 술어 요소인 주절을 MC(Main Clause)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ST(Standard Time)로, 발화시점을 UT(Utterance Time)로 약칭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1)을 보면,

(1) 試験が終わったので、郊外に遊びに行った。

「 ので 」를 중심으로 그 앞의 술어요소인 「 終わった 」가 SC가 되고, 「 ので 」의 뒤에 오는 술어요소인 「 行った 」가 MC가 되며, 종속절 사건의 시제의 기준점 ST는 MC와 같으므로 $\text{ST} = \text{MC}$ 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주절 사건이 종속절 사건에 후행하므로 $\text{SC} < \text{MC}$ 라고 표기할 수 있다(여기서 $\text{X} < \text{Y}$ 는 「X가 Y에 선행한다」는 뜻임).

다음으로 시제 해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본형과 タ형 이 가지는 시간적 전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 太郎が寝ていたので起こしてあげた。

(3) 来た人も、じきに歸っていった。

(2)와 (3)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시간적으로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에 종속절 사건의 일본어의 시제를 담당하는, 대립하는 두 형식 중 \times 형이 쓰이고 있다.

(4) 太郎が寝ているので起こしてあげた。

(5) そんな計畫では、來た人もすぐに歸ってしまうよ。

(4)의 「太郎」가 자고 있는 때는 발화시보다 이전이므로 분명 과거의 일인데도 (2)와 달리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ル」가 쓰이고 있다. 그 이유는 (4)와 (5)의 종속절 사건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절시를 기준으로 그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4)는 깨워준 때를 기준으로 볼 때, 자고 있던 것은 동시(同時)의 사건이므로 「ル」를 쓴 것이고, (5)는 사람이 돌아가 버리는 때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온 것은 그 이전의 일이므로 「タ」를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든, 주절시를 기준으로 하든 기본형과 \times 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6) 기본형과 \times 형이 갖는 시간적 전후관계

기본형 : 종속절시가 기준시 이후 또는 동시를 나타낸다($ST \leq SC$).

\times 형 : 종속절시가 기준시 이전을 나타낸다($SC < ST$).

다음으로 시제해석원리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시제 요소의 출현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각 분화절을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1류에 속하는 절들은 기본적으로 시제 요소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주절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접속조사가 갖는 의미에 따라 주절시 혹은 발화시 어느 한 쪽으로 규정된다.

다음, 2류에 속하는 절들은 시제 요소가 나타나는데 주절에 대한 독립도가 낮은 편이라 2류에 속하는 절들은 기본적으로 주절시를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3류에 속하는 절들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문장이 갖는 무드의 성격에 따라 주절시를 기준으로 하는 절들도 있다.

(7) 시제해석원리

1류 종속절 : 시제 요소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 접속조사류의 의미가 시제를 결정한다.

2류 종속절 : 주절시가 종속절시의 기준이 된다($MC = ST$)

3류 종속절 : 발화시가 종속절시의 기준이 된다($UT = ST$)

종속절 시제해석원리에 따라 해석하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들 수 있다.

(8) 鈴木さんは車を買うために、一生懸命働いている。

(8)에서 「ために」는 접속조사류이고, 「ために」앞에 접속하는 술어요소인 「買う」는 SC, 「ために」뒤에 오는 술어요소인 「働いている」는 MC이다. タメニ절은 목적의 의미 기능을 가진 종속절이다. 앞의 시제 요소의 출현 여부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タメニ절은 1류에 속한다. 따라서 시제해석원리에 따라 종속절시의 기준시점은 주절시가 된다($ST=MC$). 그리고 종속절 술어의 형태가 「買う」라는 기본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주절시(MC)보다 이후의 사건이거나 동시(同時)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MC \leq SC$). 그런데 목적의 タメニ절이 가지는 내용은 「ために」라는 접속조사류 자체가 갖고 있는 어휘적 의미 기능에 따라 주절시보다 후속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1류 종속절의 시제해석원리에 따라 정해진 $MC \leq SC$ 라는 조건 중에서 $MC = SC$ 는 배제되고 $MC < SC$ 라는 시간적 전후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8)의 시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된다.

(9) 예문(8)의 시제 해석 : $MC = UT < SC$

또, 다음 예문을 보면,

(10) 弟は大學に行ったが、兄は行かなかった。

(10)은 접속조사류가 「が」인 종속절이므로, 상기의 분류에서 3류에 속하는 종속절이다. 3류 종속절의 시제해석원리는 종속절시가 발화시를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이므로($ST = UT$), (10)의 종속절의 기준시점은 발화시가 된다. 그리고 종속절의 술어 형태가 「行った」라는 タ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발화시보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의 시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된다.

(11) 예문 (10)의 시제 해석 : SC < UT

(SC와 MC의 전후 관계는 나타나지 않음)

이와 같이 일본어 종속절의 시제 해석에 있어서는 보통 시제해석원리가 문법적인 요소로서 토대를 이루고, 그 위에 각각의 종속절의 접속조사류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 기능 요소가 조합을 이루어 시제 해석이 이루어진다.

다음 절부터는 상기의 두 요소의 조합을 통하여, 절의 내부구조에 의해 분류된 여러 분화절의 시제 해석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다.

2.2 시제 해석 원리에 따른 용례 분석

2.2.1 보이스(voice) 분화절

보이스 분화절에 속하는 종속절은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는 ナガラ절과 ツツ절이 있다 (여기서 ナガラ는 ‘계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ながら」와 「つつ」의 앞에는 동사의 연용형이 와서 붙고, 후속하는 동작과 함께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낸다. 즉 후속하는 술어요소와 동시에 일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ナガラ절과 ツツ절은 보이스 분화절이기 때문에 보이스 요소만 종속절 내부에 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제 요소의 대립이 없으며 1류 종속절에 속한다. 1류 종속절은 시제 속성을 갖지 않으나 주절 술어의 동사 부분과 호응하기 때문에 주절시를 기준시점으로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ながら」와 「つつ」는 주절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의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ナガラ절과 ツツ절의 기준시점은 주절시가 됨을 알 수 있다.

(12) 私は歩きながら、パンを食べていた。

(13) 先生は、新聞配達をしつつ大學に通ったそうだ。

(12)의 「歩き」의 시점은 「食べていた」의 시점과 일치한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앞의 술어요소나 뒤의 술어요소가 모두 동작을 나타내는 술어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野田(2002)에 의하면, ナガラ절과 ツツ절은 주절의 술어의 아스펙트 계층과 호응 관계에 있는 종속절이기 때문이다. 아스펙트는 동사에 접속하는 술어요소이지, 동사

이외의 형용사, 형용동사에 접속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러므로 주절의 술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술어여야 하고, 「ながら」와 「つつ」가 동사 및 조동사와 접속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종속절의 술어도 동작성을 띤다.

그러므로 (13)에서 「新聞配達をし」의 시점은 「通った」라는 동작의 시점과 일치하며 「そうだ」의 시점과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ナガラ절과 ツツ절과 같은 보이스 분화절의 시제해석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14) ナガラ・つつ절의 시제해석원칙

i) SC=MC

ii) SC와 MC는 모두 동작성 술어이다.

2.2.2 아스펙트(Aspect) 분화절

아스펙트 요소를 내부에 갖고 있는 절이 아스펙트 분화절로서 ズニ절과 ナイデ절이 대표적이다. 아스펙트 분화절에서도 역시 시제 요소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1류 종속절에 속하는 분화절이다. 그러므로 1류 종속절의 시제해석원리에 따라서 그 기준시점은 주절시가 된다.

(15) 飯も食わずに、本ばかり讀んでいる。

(16) わきめもふらず、仕事をしようだ。

예문 (15)의 앞의 술어요소인 「食わ」는 시제 속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주절시가 그 기준시점이 된다. ズニ절이 앞에서 살펴본 野田(2002)에서처럼 주절의 술어 계층의 어느 부분과 호응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주절술어의 긍정·부정 요소와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17) よく見ずに買った。

(18) *よく見ずに買わなかった。(野田2002 : p.13)

예문 (17)과 같이 말할 수는 있어도, (18)과 같은 문은 비문(非文)이 된다. 이것으로 볼 때, ズニ절은 주절 술어의 긍정·부정 요소와 호응관계에 있으므로 발화시보다 주절시의

영향을 더 받게 되어 기준시점이 주절시가 된다. 그러므로 (15)의 앞의 술어 요소「食わ」는 뒤의 술어 요소인「讀んでいる」를 기준으로 하며 $SC = MC$ 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 유로 예문 (16)에서 무드 요소인「ようだ」의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지 않고, 그 앞의 동사의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문 (16)의「ふらず」의 기준 시점은「仕事をした」의 시점이 되는 것이다.

한편, ナイデ절도 ズニ절과 마찬가지로의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19) 學校にも行かないで、何をしているのだ。

앞의 술어 요소인「行か」의 기준 시점은 주절시가 된다. 그런데 주절시의 술어가「ている」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절시의 시점은 발화시와 일치한다. 따라서 (19)의 시제는「 $SC = MC = UT$ 」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20) ズニ・ナイデ절의 시제해석규칙

i) $SC = MC$

ii) SC 와 MC 는 모두 동작성 술어이다.

2.2.3 긍정·부정 분화절

긍정·부정 분화절에 속하는 종속절의 수는 매우 많은 편이다. 긍정·부정 분화절 중에는 1류 종속절에 속하는 것도 있고, 2류에 속하는 것도 있다. 2류 종속절에서는 1류 종속절과 달리 시제의 대립을 나타내는 요소가 출현한다. 하지만, 주절에 대한 종속절의 독립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발화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지 못하고 주절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 의미 기능을 가진 접속조사류들을 가진 종속절이 많기 때문에 의미별로 나누어서 긍정·부정 분화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2.3.1 ヨウニ・タメニ(목적)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절로서 ヨウニ절과 タメニ절, 그리고 의지형+ト절에 대해서 분석한다. 앞에서 행한 분류에 따라 ヨウニ・タメニ절은 모두 1류 종속절에 속한다. 그러므로 종속절의 기준점 $ST = MC$ 라는 시제해석원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목적의 종

속절의 내용은 주절의 동작보다 시간적으로 후속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보이스 분화절인 ナガラ절, 아스펙트 분화절인 ズニ절이 주절시와 동시(同時)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종속절이 나타내는 내용은 주절에 후속하는 MC < SC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1) 眠くならないように顔を洗ってよ。

(22) はやく着くようにタクシーで行った。

(23) フランスに行くために、たぶん花子は貯金をするだろう。

예문 (21)의 종속절의 술어인 「眠くならない」는 주절의 술어 「洗う」에 대해서도 후속하는 사건이고, 대타적(對他的) 무드의 시점(여기서는 발화시)에 대해서도 후속하는 사건이다. (21)의 주절은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데, 여기에는 청자(聽者)에 대한 무드인 대타적(對他的) 무드가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주절의 술어는 복합술어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眠くならない」의 기준 시점이 「洗う」라는 동사의 시점인가, 아니면 대타적 무드의 시점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목적의 내용은 주절의 동작이 노리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즉, 목적의 종속절이 가지는 의미의 영향 범위는 주절의 동작성 술어까지만 미치지, 주절 술어의 무드 계층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21)의 기준점은 「洗う」의 시점이 된다. (22)의 「着く」의 시점도 주절의 술어 「行った」의 시점보다 시간적으로 후속한다. (23)의 「行く」의 시점도 주절의 「貯金をする」의 시점보다 시간적으로 후속한다. 여기서도 목적절의 의미의 영향 범위가 주절 술어의 무드 계층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だろう」의 시점은 종속절 술어인 「行く」의 기준 시점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목적의 종속절의 내용은 주절의 시점보다 항상 시간적으로 후속하므로 시제 요소의 ㄸ형이 ヨウニ절이나 タメニ절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4) a *生計をたてたために、働く。

b 生計をたてるために、働く。

(24)와 같이 「ために」나 「ように」앞에는 기본형만이 올 수 있으며, ㄸ형이 접속해서 는 비문(非文)이 되고 만다.

(25) ヨウニ・タメニ의 시제해석원칙

i) ST = MC

ii) MC < SC

iii) MC는 동작성 술어

2.2.3.2 タメニ(이유)・セイデ

이 절에서는 동작이나 상태의 이유를 나타내는 タメニ절과 セイデ절에 대해서 분석한다.

(26) きょうは病氣のために欠席した。

(27) 怠けたために落第した。

(28) 雨が多かったせいで、遠足は延期された。

위의 예문들은 접속조사류인 와 タメニ절과 セイデ절이 주절 술어의 어느 계층과 호응 하는가로 볼 때 2류 종속절에 속한다. 2류 종속절은 1류 종속절과는 달리 주절의 술어 자리에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도 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タメニ절과 セイデ절은 2류 종속절에 속하기 때문에 ST = MC라는 시제해석원리를 갖는다. 그런데 1류와 달리 주절에 동작을 나타내는 술어 뿐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도 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복합술어가 주절에 왔을 때, 어디에 기준 시점을 두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9) 道が混んでいたせいで、遅刻したらしい。

예문 (29)에서 종속절의 「混んでいた」의 기준 시점은 「遅刻した」의 시점이 되는지, 「らしい」의 시점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せい」의 의미가 미치는 범위를 생각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セイデ절의 내용은 「遅刻した」의 이유가 되지, 「遅刻した」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기준 시점은 「らしい」의 시점이 아닌 「遅刻した」의 시점이 된다.

그런데, 다음 예문은 위와 같은 설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30) その書類には不備があったために、太郎は明日その点を修正する。

(31) 昨日まで病氣だったために、花子は明日も會社を休むようだ。

예문 (30)과 (31)은 어디에 タメニ절의 기준 시점이 있는 것일까? 상기의 설명대로 주절시의 동작의 시점인 「修正する」와 「休む」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보아도 될 것 같지만, 발화시나 「ようだ」와 같은 무드의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에 대하여 中村(2002)는 이유의 종속절에 있어서 タ형이 판단 시점에 있어서의 사실(事實) 밖에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의 무드의 시점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기준 시점을 둘 수는 없다고 기술하였다. (30)과 (31)은 기준 시점이 모두 판단의 무드의 시점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준 시점이 주절의 동사에 있지 않고 그 뒤의 접속하는 무드의 시점으로 기준 시점이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中村의 설명을 받아들여 (30)과 (31)의 기준 시점은 주절의 동사 부분인 「修正する」「休む」가 아니라 (30)에 있어서는 발화시가 기준 시점이 되고, (31)에 있어서는 「ようだ」의 시점이 종속절의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과 (31)의 시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된다.

(30)에서는 발화시가 기준시점이 되며, 「不備があった」는 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사실인데 タ형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 시점의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修正する」는 기본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 시점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30)은 SC < UT < MC의 순으로 시제 해석을 할 수 있다. (31)은 판단의 무드 요소인 「ようだ」의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된다. 그런데 「ようだ」의 시점은 발화시와 동일하므로 발화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30)과 마찬가지로 SC < UT(= ようだ의 시점) < MC 와 같은 시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유의 종속절인 タメニ절과 セイデ절의 시제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2) タメニ・セイデ절의 시제해석원칙

i) ST = MC

ii) 만약 MC의 무드 시점 < MC 이면, ST = MC의 무드 시점

2.2.3.3 マエニ・マデニ・ニアタツテ・ニサイシ

(33) 花子は、來年フランスに行く前に、スペインに行く。

- (34) やわらかくなるまで煮る。
 (35) お父さんが歸ってくるまでに、掃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36) 海外旅行するにあたって旅券をつくるはずだ。
 (37) 建物の落成するに際し、式典が舉行された。

マエニ・マデニ・ニアタツテ절은 모두 주절 술어의 동사구와 호응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1류 종속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각 종속절의 기준 시점은 MC이다. 그런데, 위의 예문들을 보면 마エニ・マデニ・ニアタツテ 등의 접속조사류 앞에 접속하는 시제 요소의 형태가 모두 기본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기본형이 아니라 타형이 온다면,

- (38) *寝た前に、齒を磨いた。
 (39) *歸ってきたまでに、ここで待っているよ。

와 같이 비문(非文)이 생성되고 만다. 즉, 이 종속절들은 반드시 기본형에만 접속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접속조사류가 갖는 의미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접속조사류 「まえに」「までに」 등은 그 자체로 주절시보다 시간적으로 이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마エニ・マデニ절 등이 표현하는 내용들은 자동적으로 주절시 이전일 수 밖에 없으며, 이 절들은 주절시가 기준시이기 때문에 종속절의 시제 요소로 기준 시점 이전을 나타내는 기본형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36)은 뒤에 「はずだ」라는 판단의 무드 요소가 있지만, 마エニ・マデニ절에서처럼 무드의 시점으로 이동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들의 시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된다. (33)과 (34)는 $UT < MC < SC$ 이고, (35)와 (37)은 $MC < SC < UT$ 이며, (36)은 $UT(=はずだ의 시점) < MC < SC$ 가 된다.

이상, 마エニ・マデニ・ニアタツテ・ニサイシ의 시제 해석에 관해 알아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시제해석원칙을 정할 수 있다.

- (40) 마エニ・マデニ・ニアタツテ・ニサイシ의 시제해석원칙
 i) $ST = MC$
 ii) $MC < SC$

iii) MC는 동작성 술어

2.2.3.4 アトデ・トタン

다음 예문을 보자.

- (41) 勉強した後で、遊びに行く。
 (42) 外出したとたん、雨が降り出した。
 (43) ドアがあくと、どっと客が入り込んだ。

アトデ・トタン절은 마에니·마데니절과 비슷한 시제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종속절과 주절의 시간적 전후관계가 반대이다. 즉, 마에니·마데니절 등과 마찬가지로 1류 종속절에 속하므로 $ST = MC$ 라는 기준 시점을 갖지만, 주절이 종속절에 선행하지 않고 후행한다. 즉, $SC < MC$ 의 관계에 있다. 아토데·토탄절은 그 앞에 반드시 τ 형만 접속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접속조사류가 갖는 의미 기능이 그 자체로 주절시보다 이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제 형태 역시 기준시 이전을 나타내는 τ 형이 쓰일 수밖에 없으며 다음과 같은 문은 성립할 수가 없다.

- (44) * 勉強するあとで、遊んだ。

이상에서 아토데절과 토탄절의 시제해석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 (45) 아토데·토탄절의 시제해석원칙
 i) $ST = MC$
 ii) $SC < MC$
 iii) MC는 동작성 술어

2.2.3.5 トキニ・トコロニ

τ 형에도 기본형에도 접속하는 접속조사류인 토키니·토크로니절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겠다. 이들은 시제 요소의 대립이 있고 주절시를 기준으로 하는 2류 종속절에 속하므로 $ST = MC$ 라는 시제해석원리를 공통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시제 요소의 대립이 있기 때

문에 앞에서 다룬 マエニ절・アトデ절같은 시간의 종속절과는 달리 주절과 종속절의 시간적 전후관계가 일정하지 않다.

(46) 學校を卒業したときに、軍隊に入った。

(47) 競技が終わるときに、一人の選手が倒れてしまった。

(48) 彼が寝ているときに、逃げ出した。

주절과 종속절의 시간적 전후관계는 τ 형과 기본형이 가지는 시제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46)은 τ 형이 쓰이고 있으므로 기준시보다 이전의 사건을 가리킨다. 따라서 (46)의 시제는 $SC < MC < UT$ 이다. 그리고 (47)은 기본형이 쓰이고 있으므로 $MC = SC < UT$ 이다. (48)은 「ている」라는 현재진행형을 쓰고 있으므로 $SC = MC < UT$ 라는 시제 해석을 갖는다.

이것으로 볼 때, トキニ・トコロニ절이 갖는 시제해석원칙은 다음과 같다.

(49) トキニ・トコロニ절의 시제해석원칙

i) $ST = MC$

2.2.4 시제 분화절

시제 분화절에 속하는 종속절은 이유를 나타내는 ノデ・カラ절이 있다. 이 절은 상기의 분류에 의하면 3류 종속절에 속하게 되지만, 2류와 3류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주절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발화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들을 보면,

(50) 雨が降るので、遠足は中止だ。

(51) インフルエンザの患者が多くなったので、學級閉鎖となったらしい。

(52) よく走っているので、病氣が治ったみだいだ。

(50)은 발화시와 주절시가 일치하므로 「降る」의 기준 시점은 발화시와 주절시 모두 될 수 있다. (51)도 역시 발화시와 주절시 모두 기준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患者が多くなった」는 「學級閉鎖となった」의 이유가 되지, 「學級閉鎖となった」라고 판단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患者が多くなった」의 의미가 미치는 범위는 판단의 무드 요소인 「らしい」까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患者が多くなった」의 기준 시점은 주절시에 놓이게 되며, τ 형이 쓰이고 있으므로 주절시 사건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예문 (52)는 「よく走っている」한 것은 「病氣が治った」의 이유가 아니라 「病氣が治った」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よく走っている」의 의미가 미치는 범위는 판단의 무드 요소인 「みたいだ」까지이며, 「みたいだ」의 시점은 발화시와 동일하므로 (52)의 「よく走っている」의 기준 시점은 발화시가 되는 것이다. 즉,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이유인가, 아니면 화자의 판단에 대한 이유인가에 따라 주절시와 발화시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τ 메ニ・セイノ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주절 술어의 동작이나 상태가 주절의 무드 요소의 시점보다 시간적으로 후속할 때는 기준 시점이 주절의 무드 요소의 시점으로 이동한다는 점은 노데절과 카라절에서도 역시 적용된다. 그 이유는 이유의 종속절이나 케레ド・가・시와 같은 순접・역접의 종속절은 모두 주절 술어의 무드 계층과 호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종류의 절들은 판단 시점에 있어서의 사실(事實)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절 술어의 동작이나 상태가 판단 시점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있을 경우에는 판단 시점, 즉 판단의 무드 요소의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이다.

(53) 노데・카라절의 시제해석원칙

i) $ST = MC$ or UT

ii) 만약 MC 의 무드 시점 $< MC$ 이면, $ST = MC$ 의 무드 시점

2.2.5 대사적(對事的) 무드 분화절

「けれど」「が」「し」와 같은 접속조사류를 갖는 종속절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절들은 그 내부에 시제 요소의 대립이 완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무드 요소까지도 내포할 수 있어 주절에 대한 독립도(獨立度)가 매우 높은 종속절이다. 그래서 이 절들은 3류 종속절로 볼 수 있으며 $ST = UT$ 라는 시제해석원리를 공통으로 갖는다. 즉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 (54) すこし寒いけれど、氣持がいい。
 (55) 好きだけれど、永續きしない。
 (56) 今夜は雨だが、明日の天氣はどうだろう。
 (57) 弟は大學に行ったが、兄は行かなかった。
 (58) 雨も降るし、風も吹く。

위의 문장들을 보면 모두 ST = UT 라는 원칙에 대체로 들어맞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문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 (59) 病氣で苦勞しているが、出勤したようだ。

(59)와 같이 사실(事實)에 대한 판단의 무드 요소가 있을 때, 가절의 앞의 술어 요소는 그 기준점이 「ようだ」에 있는 것이 아니라 「出勤した」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ようだ」의 시점은 발화시와 같으므로 (59)의 가절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절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된다.

(57)과 같은 문도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주절의 「行かなかった」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 주절의 「行かなかった」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볼 때 「が」앞의 술어 요소인 「行った」는 타형이 쓰이고 있으므로 주절의 「行かなかった」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제 해석은 SC < MC < UT 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발화시를 기준 시점으로 보면 SC < UT, MC < UT 로 종속절, 주절 모두 발화시 이전임만을 알 수 있고,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시간 관계는 알 수 없다.

- (60) ケレド・ガ・シ절의 시제해석원칙
 i) ST = UT (단, 경우에 따라 ST = MC)

2.2.6 대타적(對他的) 무드(mood) 분화절

대타적 무드 분화절에 속하는 종속절은 발언인용의 卜절이 있다.²⁾ 이 발언인용의 卜절

2) 발언 인용의 卜절에는, 직접 인용의 경우 외에도 접속 조사 ト는 ～という、～とかく、～とつた
 える와 같이 인용문에 접속하여 いう나 かく 등의 전달을 나타내는 동사의 향(목적어)를 만든다.

은 매우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즉, 卜절의 내부에는 무드 요소 뿐만 아니라 종조사까지 내포할 수 있어, 가장 넓게 분화가 되어 있지만, 주절 술어의 여간과 호응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卜절 내부에는 거의 단문에 가까운 문이 들어가지만, 卜라는 접속조사류에 의해 2류 종속절이 되므로 발화시가 아닌 주절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게 된다.

(61) もうだめだと思った。

(62) 彼は「明日きっと學校にきてくださいね」と言つた。

(63) 犯人はこの中にいたと信じた。

위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61)은 기준시점이 주절시에 있으며, 종속절의 술어가 상태성 술어이므로 주절시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시제 해석은 $SC = MC < UT$ 와 같다. (62)는 (61)과는 달리 간접 인용이 아닌 직접 인용의 卜절인데 여기서도 간접 인용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절의 「言つた」에 대하여 종속절의 「きてくださいね」는 시간적으로 후속한다. 시제 해석은 $MC < SC$, $MC < UT$, UT 와 SC 의 시간적 전후관계는 알 수 없다. (63)은 종속절 술어에 \times 형이 쓰이고 있으므로 주절시보다 이전의 사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63)의 시제 해석은 $SC < MC < UT$ 이다. 이상, 발언인용의 卜절의 시제해석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4) 발언인용의 卜절의 시제해석원칙

i) $ST = MC$

3. 결론

본고에서는 먼저 종속절의 내부 구조에 따른 절의 분류에 따라 전체 종속절을 보이스 분화절, 아스펙트 분화절, 긍정·부정 분화절, 시제 분화절, 대사적 무드 분화절, 대타적 무드 분화절로 나누고, 여기서 시제 요소의 출현 여부를 기준으로 각 분화절을 1류 종속

이것을 '간접 인용의 卜'라고 한다. 또 \sim とおもう、 \sim と信じる와 같이 명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를 나타내는 동사의 형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명제 태도의 卜'라고 하기도 한다.

절, 2류 종속절, 3류 종속절로 규합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시제해석원리를 부여하였다. 1류 종속절은 시제 요소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시제 대립이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동사구에 관계하는 요소이다. 2류 종속절은 1류와 3류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종속절로서 시제 요소가 출현하기는 하지만, 주절 술어의 동사구 계층과 호응 관계에 있어 주절에 대한 독립도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발화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지 못하고 주절시를 기준시로 하는 종속절이다. 3류 종속절은 τ 형과 기본형의 시제 대립이 항상 나타나며, 주절 술어의 동사구 계층뿐만 아니라 그 외측에 접속하는 무드 요소에까지 호응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절에 대한 독립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발화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종속절이다. 하지만, 반드시 발화시만을 기준시점으로 하지 않으며 주절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 문헌

- 岩崎 卓(2001) 「複文においての時制」 『言語』30-13, 大修館書店, pp.51-53
 田窪行則(1987) 「統語構造と文脈情報」 『日本語學』6-5, 明治書院
 中村ちどり(2001) 『日本語の時間表現』, くろしお出版, pp.127-131
 丹羽哲也(2001) 「連体修飾節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 『言語』30-13, 大修館書店, pp.58-59
 野田尙史 外(2002) 『複文と談話』, 岩波書店, pp.13-17
 南 不二男(1974) 『現代日本語の構造』, 大修館書店, pp.128-129
 三原健一(1991) 「「時点の原理」と從屬節時制」 『日本語學』10-3, 明治書院, pp.64-76
 三原健一(1992) 『時制解釋と統語現象』, くろしお出版, pp.21-74